장성군, 전남도민체전 준비 돌입…10월중 조직위 본격 가동

2025년 장애인체전과 함께 열려…전담반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오는 2025년 '64회 전남도체육대회' (이하 전남도민체전)를 여는 장성군이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꾸린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025년 4월 열리는 전남도민체전과 이어 5월 개최되는 '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 각각 2만명과 8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일찌감치 대회 준비에 나서 전담반을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역 체육시설과 학교시설을 활용해 종목별로 경기장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각 기관과 단체는 역할을 세우고 효율적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25년 전남도민체전 개최지인 장성군이 일찌감치 대회 준비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민체전 유치를 확정 지은 김한종(앞줄 가운데) 군수와 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대회 기획과 총괄을 맡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경기 운영과 경기장 시설 공인·승인, 대표 선수 육성 등을 책임진다.

장성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정비를 맡고, 장성경찰서와 상무대는 경비·경호·교통·안전대책을, 장성소방서는 소방·안전·구조·구급 대책을 마련한다.

한국전력은 전기 설비를 담당하고 케이티(KT) 장성지사는 통신시설을 지원한다.

읍면에서는 체육대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에 힘을 보탠다.

장성군은 10월까지 대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후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체전 상징물을 선정하고 종목별 경기장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나선다.

오는 2025년 4월 열리는 전남도민체전에서는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등 22개 정식 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시범 종목으로는 족구가 예정됐다. 2만여 명의 참가자가 신설 공설운동장 등 지역 24개 장소에서 각축을 벌인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도민체전은 장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흙길 조성 건강해진 메타세쿼이아길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 흙길이 조성됐다. 메타세쿼이아길에 조성된 흙길은 길이 2.1km, 폭 2.0m다. 마사토(굵은 모래)여서 방문객들이 맨발로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담양군은 추후 발 씻는 곳 등 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할 예정이다. 〈담양군 제공〉

장흥군 웰니스 관광 활성화 팔 걷었다

전담반 회의…콘텐츠 발굴 등 논의

장흥군이 건강과 관광을 함께 누리는 '웰니스'(웰빙+피트니스) 활성화에 나선다.

장흥군은 최근 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담반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담반(태스크포스)은 웰니스 관광을 장흥군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석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난 3월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과 웰니스 사업 운영현황·연관사업 추진상황 등을 소개했다. 또 연계 발전방안과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고, 팸투어 등을 통한 기획 홍보 방안을 토론 방식으로 논의했다.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 숲 우드랜드 '치유의 숲',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참가 신청이 마감돼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은 체질 맞춤 힐링 음식과 생약초 치료·미용 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천관산에 산림치유원 등을 조성하는 '천관산 H.U.G' 사업을 연계해 웰니스 관광 분야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이 최근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담반 회의'를 열고 정남진 편백 숲 우드랜드와 천관산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흥군 제공〉

함평농업기술센터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검사 9월 20일까지 기술지원

함평군이 지역 딸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꽃눈 분화 현미경 검사 기술지원을 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9월 20일까지 딸기 꽃눈 분화 여부를 현미경으로 검사해 최적의 딸기 정식 시기와 양분 투입 시기를 농가에 알려준다.

꽃눈 분화는 딸기가 생육에 필요한 영양·육묘 기간 등의 조건들이 모두 다 완성돼 꽃눈을 형성하는 것이다.

딸기 꽃눈은 육안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60배 이상의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꽃눈 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딸기 모종을 너무 빨리 정식하면 딸기 수확이 1~2달 가량 늦어져 딸기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업인은 육묘장 중앙 부위에 잎색이 진한 묘 3~5개를 뽑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방문하면 된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함평에서 주로 재배하는 설향 딸기 품종은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정식을 해야 11월부터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며 "반드시 꽃눈 분화를 확인하고 적기 정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 특화 숙박공간 '오소 스테이' 개장

강진 특화 숙박공간 '오소 스테이'(OSO STAY)가 최근 문을 열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최근 강진읍 동성리에 '오소 스테이'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위한 특화 숙박공간 '오소 스테이'가 최근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진군 제공〉

오소 스테이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인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으로 마련됐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수탁 운영한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방문객을 위한 장기 체류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1402㎡ 부지에 연면적 756.94㎡로 지어진 오소 스테이는 지상 2층짜리 건물 A동과 지상 3층 건물 B동으로 나눠진다.

대가족이 머물 수 있는 8인실 1개와 14인실 1개, 3인실 3개, 4인실 1개 등이 마련됐다. 복층형 공간으로 객실을 꾸민 것이 특징이다.

휴가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워케이션 라운지와 8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 공유 주방, 세탁실 등이 들어섰다.

옥상에는 밤하늘 별을 볼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

오소 스테이는 앞으로 관광객 체류형 체험을 위한 시설로 운영된다.

강진의 대표 생활관광 사업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푸소'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소 스테이 누리집(osostay2023.modoo.at)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061-434-799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석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오소 스테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워케이션, 특화 공간과 가족을 위한 시설로 구분해 운영한다"며 "지역 식음시설 제휴 공모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주변 시설 안내와 할인의 혜택을 제공, 지역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시책 일몰제' 첫 시행…사업·법규 26건 없앴다

예산 재분배 효과 극대화 기대

나주시가 올해 '시책 일몰제'를 처음 시행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자치법규 26건을 없앴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위원과 시책 일몰 대상 사업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민선 8기에서 도입하는 '시책 일몰제'는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한 시책을 없애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행정력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시책 일몰제를 통해 예산을 적절한 곳에 재배분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가 최근 '시책일몰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자치법규 26건을 없애기로 했다. 〈나주시 제공〉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 부친 36건 가운데 사업 14건과 자치법규 12건을 각각 일몰 대상 시책으로 선정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모든 부서의 시책·제도·행사·일반업무 등 예산·비예산 사업 전수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일몰이 필요한 36건의 사업,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이번에 없애기로 한 주요 사업은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나주시민오케스트라 운영 ▲남평 향교 순례길 조성 사업 등 14건이다.

이들 사업은 행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사업으로 분류됐다. 일몰 사업은 관련 조례가 폐지·일부 개정되며 다음 해 예산 편성 항목에서 제외된다.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나주시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해 ▲목적 이미 달성 여부 ▲투자 비용 대비 성과 미흡 ▲행정력·예산 낭비 초래 ▲대다수 시민의 호응 저하·불편 가중 등을 검토한다.

민선 8기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강영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소장 등 내부위원 7명과 나주시의회 황광민·박소준 의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심의 자리에서 이종권 공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았다.

강영구 부시장은 "시책 일몰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시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 재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시청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해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성과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시책발굴 보고회…사업 348건 검토

담양군이 최근 '2024년 시책발굴 보고회'를 열고 새로 발굴한 348건을 검토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군수 이병노·가운데)이 최근 '2024 시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신규 시책 348건을 검토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성과를 위해 군수 지시·공약 사항의 완성도를 높이자는취지로 열렸다.

국고 건의·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합동 평가 우수성과 달성 등을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담양군은 내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을 예상하고 핵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찾고 있다. 앞으로 세부 실천 계획을 잘 준비하고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1년간의 노력이 민선 8기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과소별 핵심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